

美, 남북화해 속 대북 포괄적 해상차단 검토

무기·석유 등 운송 공해상 저지 군사행동 다음 강력한 제재 북미협상 팬 타협모색 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포괄적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 같은 신규 제재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전례 없는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천명한 이후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급상승하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남북한 대화 물꼬가 북미간 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북핵 사태는 제재·압박에서 타협 모색 쪽으로 급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상차단은 군사적 행동을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제재로 여겨진다. 특히 물자 수송을 거의 배에 의존하는 북한의 경우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강하게 반발하는 카드다.

특히 미 정부는 제재의 '구멍'이 돼온 북한 선박과 제3국 선박의 공해상 불법 환적 행위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번 제재에선 북한 선박뿐 아니라 이들과 밀거래한 중국, 대만 등 제3국 선박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제재를 주로 담당하는 미 재무부와



포르투갈 축제 등장한 트럼프·김정은 1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북쪽 토레베드라에서 열린 축제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조형물이 등장했다. 이날 축제에서 김정은을 묘사한 조형물은 미사일을 들고 있고, 트럼프는 유엔 로고가 그려진 번기에 하의를 내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부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인공위성 추적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상당한 자료를 축적하고 밀거래 현장도 포착한 것으로 안다"면서 "무엇보다 선박 간 옮겨진기(ship to ship) 차단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 포괄적인 대북 해상차단을 겨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북한 유조선 예상강 1호가 바다에서 다른 선박으로부터

터 율유를 옮겨받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고, 일본 조계기는 도미니카공화국 깃발을 단 선박이 동중국해에서 예상강 1호와 맞댄 상태에서 화물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하는 등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밀거래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해상차단 구상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 이후

급부상했다.

렉스 틸러스 장관은 당시 성명에서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 조치 필요성을 처음 주장한 데 이어, 지난달 20개국 외교장관들이 모여 북핵 해법을 논의한 밴쿠버 회의에서도 북한 선박의 해상차단을 강조했다. 밴쿠버 회의를 공동 주관한 캐나다의 조나단 반스 합참의장은 "관련국의 요청이 있으면 북한의 해상차단을 위한 해군전력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해상차단은 무기나 석탄, 석유 등 불법 금수품목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 상에서 저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지난해 9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75호에 이를 위한 제한적인 근거 조항이 있다. 또 100여 개국이 합의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규정(PSI)을 통해서도 북한에 들어가는 선박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북한 측과 접촉하는 의심스러운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한데,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국무부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를 역임한 조지프 디토머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 제재는 평창올림픽 이후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미국은 해상차단을 많이 원하고 있으나 리스크가 큰 일인 데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 모험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산케이 등 일본 보수 언론 김여정 방한 비판론 부각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특사단 방한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남북대화 경계론을 펴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도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방한 기간 개최식 등에서 북한 대표단인 김여정 노동당 전선선동부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의도적으로 의면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2일 한국 정부가 김여정 부부장을 '국빈 대우'했다면서, "비핵화라는 원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산케이신문 역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한을 정리하면서 "김여정 씨가 첫 한국 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치켜세우며 북한 방문 의욕을 부추기는 등 체제 홍보책인자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표현했다.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방북 요청에 대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10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 "미소(微笑)외교에 눈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11일 고노 다로) 등의 말을 하며 경계론을 펴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 여객기 추락 탑승자 71명 전원 사망 악천후·기체 결함 등 원인 조사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가 1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동남쪽 외곽의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이륙 직후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한 탑승자 71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타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남부 사라토프 지역 항공사 소속 안토노프(An)-148 여객기가 이날 오후 2시 24분 남부 오렌부르크주(州) 도시 오르스크로 가기 위해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이륙한 후 4분 뒤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여객기는 이후 모스크바에서 동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모스크바주 라멘스키 지역의 스테파노프스코에 마을 인근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기에는 승객 65명과 승무원 6명 등 71명이 타고 있었으나 생존자는 없었다. 모스크바교통경찰은 "탑승자 모두가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타스 통신은 사고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희생자가 대부분 오렌부르크주에 사는 러시아인들이나 스위

러 모스크바 인근 여객기 추락 사고



스인 1명과 아제르바이잔인 1명 등 3명의 외국인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비상사태부는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1개를 회수해 분석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일부 승객 시신도 수습된 것으로 알려졌다. 막심 소롤로프 교통부 장관은 그러나 많은 시신이 심하게 훼손돼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식 조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에는 약 600명의 비상사태부 요원들이 급파돼 수색구조 작업을 벌였으나 폭설로 눈이 많이 쌓여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고기 파편과 시신 잔해는 직경 1km 정도의 넓은 면적에 흩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목격자들은 "여객기가 파손돼 잔해들이 스테파노프스코에 마을 발판에 흩어져 있다"면서 "파편과 시신들이 눈 속에 파묻혀 있다"고 말했다. 한 현장 조사 관계자는 "추락 지점에 지름 17m, 깊이 2.5m의 거대한 웅덩이가 형성됐다"면서 "사고기가 지상에 충돌하며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이날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주에 아침부터 폭설이 내려 일부 항공기 운항이 취소된 점을 고려할 때 악천후가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기체 결함이나 조종사 실수 등 다른 가능성도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또 다른 언론매체는 여객기가 다른 비행물체와 충돌했거나 테러로 기체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추락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119 간신 이의부

이의부(李義府, 614-666)는 당 태종과 고종 때의 대표적인 간신배다. 무척전이 황후가 되는데 일익을 담당해 신임을 받았으나 부패 혐의로 유배 중 죽었다.

634년 문화성 의전 담당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태종의 9남 진왕 이치의 참모가 되었다. 황태자 이승건이 각종 기행으로 쫓겨나고 이치가 장손무기, 저수량 등의 지원에 힘입어 새 황태자가 되었다. 그는 문장이 뛰어난 승화잠(承華殿)을 써 태종으로부터 비단 40필을 상으로 받기도 했다. 태종의 명을 받아 사서 편찬 작업에도 참여했다.

이치가 고종으로 즉위한 후 중서성의 중서사인이 되었고 당 왕조 역사

계 국문도록 하니 필정의를 압박해 옥중에서 목매 죽도록 하였다. 황제가 그의 재주를 아껴 불문에 부쳤다. 657년 중서령을 겸하였다. 허경중과 공모해 시중 한원, 중서령 저수량이 불충한 것을 도모한다고 상주해 고명대신 저수량을 억주자사로 쫓아냈다. 매관 매직과 불법을 자행했다. 모친과 처생황후를 시작했다. 태종의 9남 진왕 이치의 참모가 되었다. 황태자 이승건이 각종 기행으로 쫓겨나고 이치가 장손무기, 저수량 등의 지원에 힘입어 새 황태자가 되었다. 그는 문장이 뛰어난 승화잠(承華殿)을 써 태종으로부터 비단 40필을 상으로 받기도 했다. 태종의 명을 받아 사서 편찬 작업에도 참여했다.

659년 겸이부상서·동중서문하삼품으로 중앙에 복귀했다.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형이나 삼촌이 된 집안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한다. 인척인 금사중 이승덕이 소원해지자 죄를 얹어

'칼 찬 살갱이' 악명...간신배의 표본

저술 업무도 담당했다. 고종은 왕황후를 폐하고 소의 무척전을 황후로 발탁코자 하였다. 고명대신의 반발이 거셀었다. 특히 태종 임종시 유지를 받든 저수량의 반대가 완강했다. "황제께서 황후를 바꾸시려면 천하의 명문가에서 뽑아라지, 하필 무찌르나. 무찌가 태종을 모신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라고 역설했다. 장손무기에게 밭보여 사천성 벽주로 좌천될 예정이던 이의부는 숙직하던 중 궁궐에서 표문을 올려서 "왕 황후를 폐하시키고 무소의를 세워 억조창생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것"을 청하였다. 고종은 그를 불러 구술 1말을 주고 옛 직책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였다. 무척전은 그를 격려하고 중서시랑으로 승진시켰다. 656년 참지정사가 되었다.

고종은 그를 불러 구술 1말을 주고 옛 직책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였다. 무척전은 그를 격려하고 중서시랑으로 승진시켰다. 656년 참지정사가 되었다. 고종은 그를 불러 구술 1말을 주고 옛 직책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였다. 무척전은 그를 격려하고 중서시랑으로 승진시켰다. 656년 참지정사가 되었다.

그는 황제의 신임을 받고 전횡을 하였다. 낙주 출신의 여인 순우씨가 감옥에 갇혔는데 대리시승 필정의에게 부탁해 그녀를 석방해 첩으로 삼고자 하였다. 대리중 단보현이 이를 문제삼아 상소문을 올렸다. 황제가 유인에게

매서 하옥시켜 자살토록 하였다. 663년 우상이 되어 관리 선발에 깊이 관여하였다. 측천황후의 권세를 믿고 매관매직에 전념해 선발이 불공정하다는 비난이 자자했다. 고종은 이 소식을 듣고 "경의 아들과 사위가 많은 불법적인 일을 하지만 내가 오히려 경을 위해 덮어주겠으니 경은 의당 그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오."라고 경고했다. 그가 얼굴색이 변해 자리를 떠나니 황제가 노여워하였다. 절름가 두원기가 "사는 집에 감옥의 기운이 있으니 20만 전을 쌓아라"고 권하니 재물을 긁어모았다. 장손무기의 손자 장손연에게 돈 700만을 받고 사진감으로 제수하였다. 우금오 양행영이 이를 고발하니 투옥되었다. 유상도를 시켜 국문케 하고 사공 이적에게 감독하라고 명하였다. 결국 사천성 수주로 유배되고 그의 아들 이진도 진주로 유배되었다. 다른 아들과 사위도 모두 제명되어 정주로 유배되니 조정에서 모두들 경사가 낫다고 환호하였다. 666년 고종은 대사면을 하였는데 장기 유배형에 처한 사람을 제외하였다. 그는 자신이 배제되자 화병이 나 죽었다. 그가 유배된 다음부터 조정의 중신들은 다시 조정에서 복귀할까봐 마음을 졸였는데 죽었다는 소식이 모두 편안해졌다고 한다. 그는 허경중과 함께 측천의 측근으로 공을 세웠으나 교만과 탐욕으로 가문의 몰락을 재촉하였다.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